

# 불교예절 교육 자아형성 바탕

## 종립청담종교 '교학수업' 학생들 호응

목요일 5교시. 점심시간을 끝마치고 방송 예절교육시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음악이 5분간 흐른다. 이어 입정하면서 10분간 명상이 이어지고 학생중 1명이 나와 모범사례를 발표한다. 5분 휴식시간에는 개교기념일을 맞아 학교를 방문하는 스님께 합장인사하자는 얘기가 끝나면 음악이 5분간 흘러나온다. 곧이어 금주의 훌륭한 인물과 오늘의 찬불가가 이어지고 다음주 과제가 제시된다.

이것은 종립 청담종합고등학교(교장 이근우)의 수업현장이다. 종립학교에서 실시하는 불교교육을 자율적인 예절교육형태로 바꾼 불교적 인격형성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예절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한 교학수업은 지난 11일 불교교육연합회의 제 26회 교육연구회에서 백미나교법사(청담종교)가 '불교적 자아형성

위한 예절교육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발표. 참석한 각 종립 학교 교법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는 종립학교 교학수업의 중요성으로 학습내용의 습득뿐 아니라 사회에서 예절과 사회규범 그리고 조화와 질서의식을 배우는 것을 꼽았다. 또한 종교의 이론습득과 체험도 중요하지만 예절을 바탕으로 심신을 정화시키고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불교적 자아형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처럼 청담종교 예절교육은



◇ 예절교육을 통한 교학수업은 예절을 바탕으로 심신을 조화시켜 불교적 자아형성을 이루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교학·법당·방송등 자율교육 매주 실시 "법당수업 무섭다" 24%...포용 대책 필요

교학수업의 궁극적 목표인 불교적 인간상 추구가 이론적이고 주입식교육으로 이루어져 교육의 효과가 떨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됐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케 함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청담종교 교학수업은 3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교학수업을 통한 예절교육과 법당수업을 통한 실천적 예절교육,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자율적 예절교

육이 그것. 1학년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매주 1시간씩 실시되고 있다.

교학수업을 통한 예절교육은 불교의 기본교리와 사상을 교육하는 물론 그 내용이 포함하고 있는 의도와 정신을 일반생활에 응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보살의 길이라는 교과과정의 교육을 통해 보살의 의미와 '사후서신'을 학습하고 예절교육내용으로 다함께 사는 사회를 통해 공동사회를 추구하는 것.

또 법당수업을 통한 실천적 예절교육은 법당출입시 합장반례를 통한 타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단정한 몸가짐을 통해 맑은 마음자세를 만들어 주며 예불의식을 통한 화합과 조화 융화정진법회를 통한 단체행동규범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런 교육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해온 백미나교법사는 "예절교육형태의 교학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

구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자아형성에 자연스럽게 불교적 사상을 고취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담종교는 지난3월 1학년 신입생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종교수업에 대한 생각은 47%가 유익하고 배울점이 많다고 응답한 반면 35%가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법당수업을 한후 학생의 느낌에서는 친근감이 40%가 무섭다는 반응을 나타내 불교에 친근감을 주는 새로운 교학수업의 실시가 필요함을 보여줬다.

김원우 기자

### 청소년 게시판

#### 파라미타 전주지회 발대

청소년 불자연합 파라미타 전주지회(지회장 혜일)는 오는 26일 전북교육대학 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출범한다.

전주교, 중앙여고를 비롯 21개교를 중심으로 출범하는 전주지회는 △민족문화탐사 및 연구 △극복대행진 △극복보물 주변 정화 △진전놀이 보급 △백일장 △마음수련대회(합선)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0652)251-4942

#### '청소년 범죄와...' 세미나

한국불교청년선인협회(회장 이호식)는 오는 23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청소년 범죄와 선도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02)3442-0470

#### 불교 레크리에이션 강좌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스님)는 14일부터 4개월과정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지도자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불교교리, 찬불가, 상어룡, 레크리에이션 댄스, 탈춤 등이 진행된다. (02)738-3933

### 조계사·능인선원등 사찰체육대회

## '포교마당' 정착

### 신도·지역주민 신심함양 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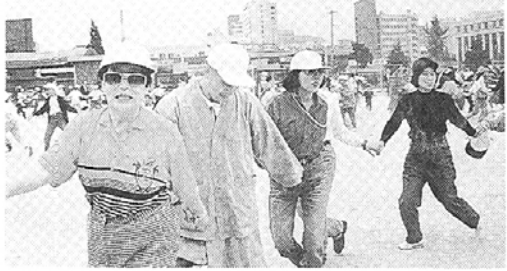
도심사찰을 중심으로 마련되는 체육대회가 새로운 신행활동으로 정착되고 있다.

사찰체육대회는 불자들의 결속과 신심증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불자들만을 위한 체육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사회적인 실천운동으로 회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 체육대회를 통해 불법홍포와 신심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각 사찰을 비롯 신행단체에서 체육

대회를 선호하고 있는 추세다. 능인선원(원장 지광)은 신도들과의 결속과 지역법회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능인체육대회를 연다.

이번 체육대회는 그동안 능인불교대학을 졸업한 학생과 지역별 가정법회회원들이 참석, 줄다리기, 피구, OX게임, 가장행렬 등 화합의 한마당을 펼친다.

상계동 무진법장사(주지 법성)는 오는 27일 마곡진리공원에서 제5회 가족운동회를 개최한다. 신도뿐만 아니라 지역민



◇도심사찰의 체육대회는 불자들의 결속 및 지역 주민과의 화합을 다지는 새 '포교마당'으로 부각되고있다. 사진은 조계사 체육대회.

들과 함께하는 이번 체육대회는 장애물경기, 줄다리기, 출렁연대회 등이 진행된다.

조계사(주지 현근)는 오는 27일 육화제를 개최한다. 신도회 청년회 학생회를 비롯 모든 신행단체가 참석하는 이번 육화제는 신행단체간의 단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밖에도 부산불교중학생연합회(회장 서정락·금정중교장)가 지난 13일 금정중학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고 대한불교청년회 강원지부(지부장 임철혁)가 20일, 청교원 서울지부(지부장 광명스님)는 26일, 각각 체육대회를 연다.

〈근〉

## 만 화 법 구 경

\* 바라문의 장 \*

부처님은 자비스런 광명으로 항상 빛난다

이 향 원

난, "보람" 정도가 아니라고 말하겠어요??!

아사유자의 일곱째 보람! 우기안개가 끝나고 축제가 벌어지면 그날!

칼루다이 테라님이 선장에 들어 딱 격멸에 이르는 순간, 몸에서 내뿜는 황금빛 광채!

그 빛처럼 우리신문이 세상을 밝힌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동안 고생도 많았지만 정말 보람도 있었어

칼루다이 테라님의 빛만이 아니고 그때 동쪽 하늘에 뜬 보름달 빛까지 보텐다면 지나칠까?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 하지 않을까?

우리보다 더 밝은 빛으로 세상을 밝힌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그 빛 네가지를 다 합친것 보다 더욱 우아하고 찬란한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는

부처님이시여 오늘 저는 여러 가지 광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광명이 다른 모든 빛을 훨씬 능가 합니다

아난다여

해는 낮에만 빛나고

달은 밤에만 빛나고

국왕의 웃음은 장식을 때만 빛나고

수행자는 깊은 신정에 있을 때만 빛나고

어려운 항상 오색의 광명을 빛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음 계승을 읊으셨답니다

태양은 한낮에 빛나고 달은 밤중에 빛나며 무사들은 감옥에서 빛나고 바라문은 명상으로 빛난다 그러나 부처님은 자비스런 광명으로 항상 빛난다

### 현대불교신문 창간 2주년 기념 발간

조계종 중정 월하스님 외 큰스님 33인의 범어 모음집

##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아시아인의 마음 읽는 책 / 아시아인은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동시대인과 나누기 위해 '마음 읽는 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연재(지상법석)된 33분 큰스님들의 범어집인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삶과 수행의 등불이 될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아시아문 "맑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선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아시아문 서울시 줄루구 건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될, 선지식 33분의 육성범어집

언어라는 도구를 빌리기는 했지만 언어를 넘어서 언어의 참된 맛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을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45년 간 살하기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無說一字]'는 그 정신을 잃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을 '말'인 깨달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큰스님들의 육성범어를 동시대인과 나누기 위해 '현대불교'에서 기획한 '지상법석'을 엮은 것이다. 어렵게든 깨닫게 하려는 큰스님들의 간절한 사랑이 때론 서늘하리만큼 일갈로, 때론 자상한 언어로 펼쳐진다.

뒤집힌 꿈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불교에서는 생사를 초월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죽는 것에도 걸리지 않고 사는 것에도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육체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요 육체를 떠난 입장에서는 생사의 구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 입장에서 죽고 사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초월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사람은 육체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중심으로 사는 것인데, 마음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죽는 것이고 육체가 사는 것이 마음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산다고 해서 별스럽게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고 해서 감해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계종 중정 월하스님 법어 중에서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신국판 342쪽 / 값 7,000원